



| 치악산 능선과 주포천이 펼쳐진 신립리. 마을 내 기존한의원에서 5분거리에 새롭게 한의원을 이전했다.



| 한의원 정면. 대문과 방전실이 모두를 맞이한다.



| 서로 마주하는 안마당. 쪽마루를 두어 외부공간을 즐기며 차를 마신다. 한옥과 양옥은 마당을 구성하는 하나의 한의원이다.



| 연구동의 탕전실. 통창을 두어 개방감을 드러냈다.

천일한의원

天一韓醫院

[설계/류와 건축사사무소, 건축주/천일한의원, 시공/고진터앤씨]

강원도 원주시 신립면 신립리. 치악산 능선과 주포천이 펼쳐진 곳에 선비의 마을을 닮은 한의사의 한의원이 있다. 오랜시간 동안 신립리 할머니들의 주치병원으로, 마을사랑방으로 존재한 천일한의원 원장님의 바람은 첫째 요란하지 않을 것, 둘째 할머니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었다. 연년세세 오랜유산을 남길 바라는 한의원은 봄내기보단 양전한 선비의 한옥을 닮은 모습이길 바랐다.

단정한 배치

1. 자연이 드는 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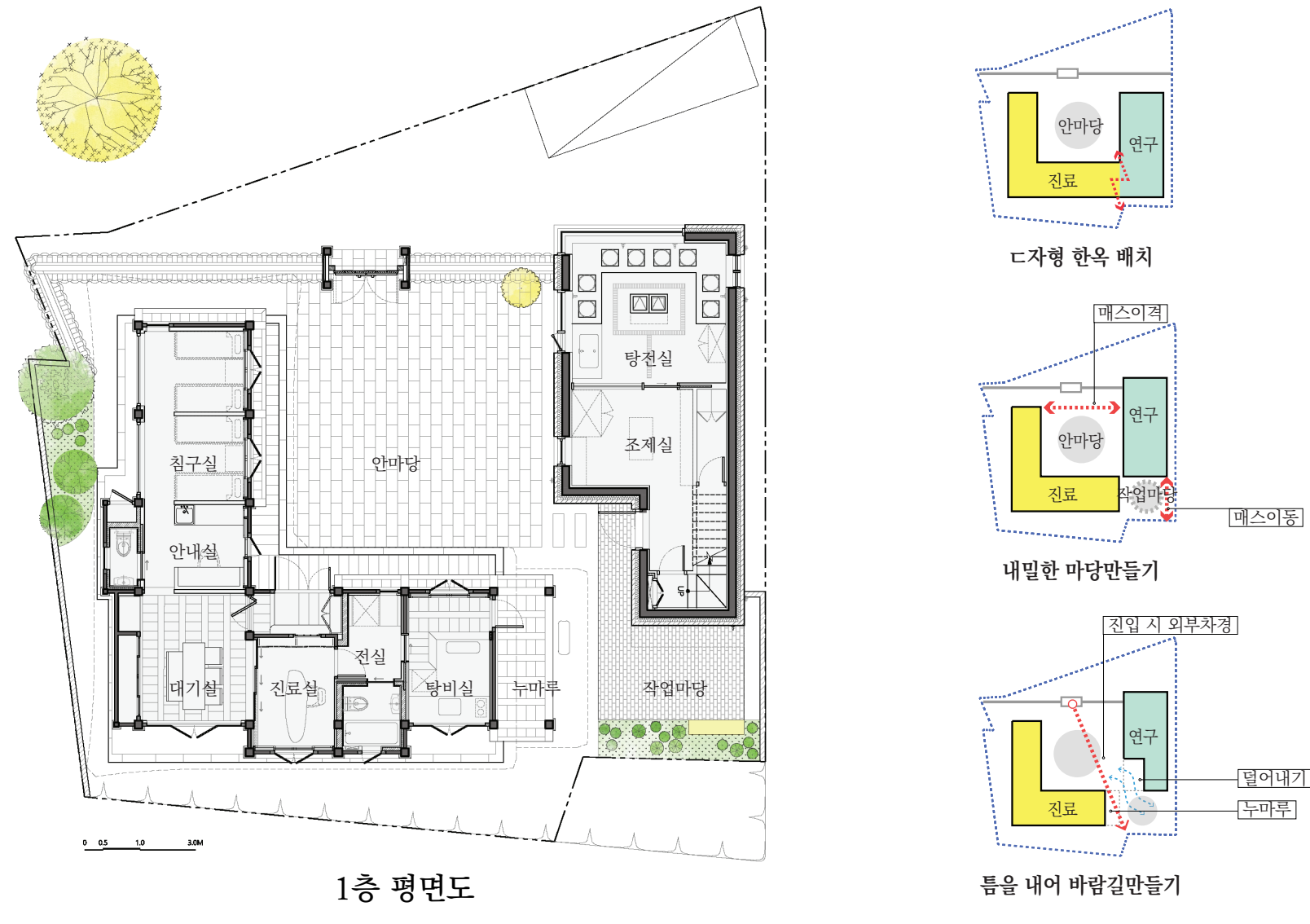
대문을 열며 보이는 누마루는 반외부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봄을 내어 바람길을 만들고 남쪽의 경관과 해가 드는 공간이다.

2. 두개의 마당

안마당은 이용객이 어울리는 공공적 성격의 마당이 되며, 진료동과 연구동 사이의 작업마당은 작업과 가족들이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개인적 마당이다.

3. 한의원 가족들을 고려한 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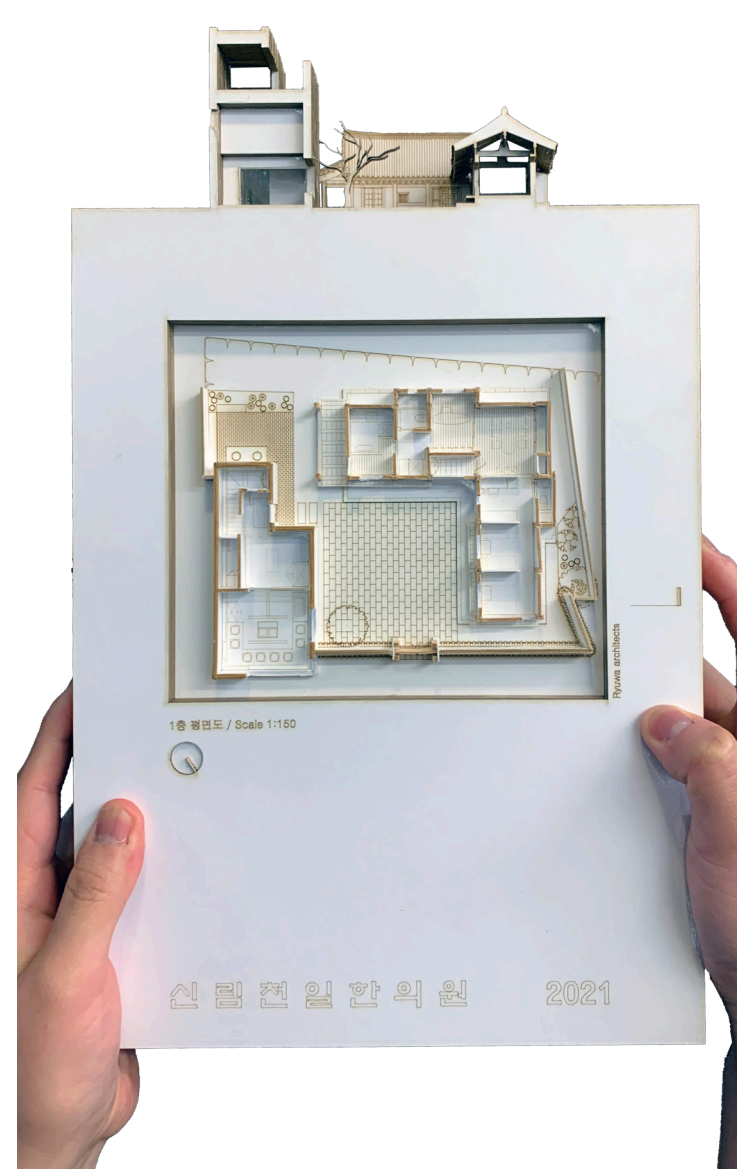
원장님과 하교 후 막내가 머무를 수 있도록 탕비실과 방을 계획했다. 전실을 기준으로 동선을 분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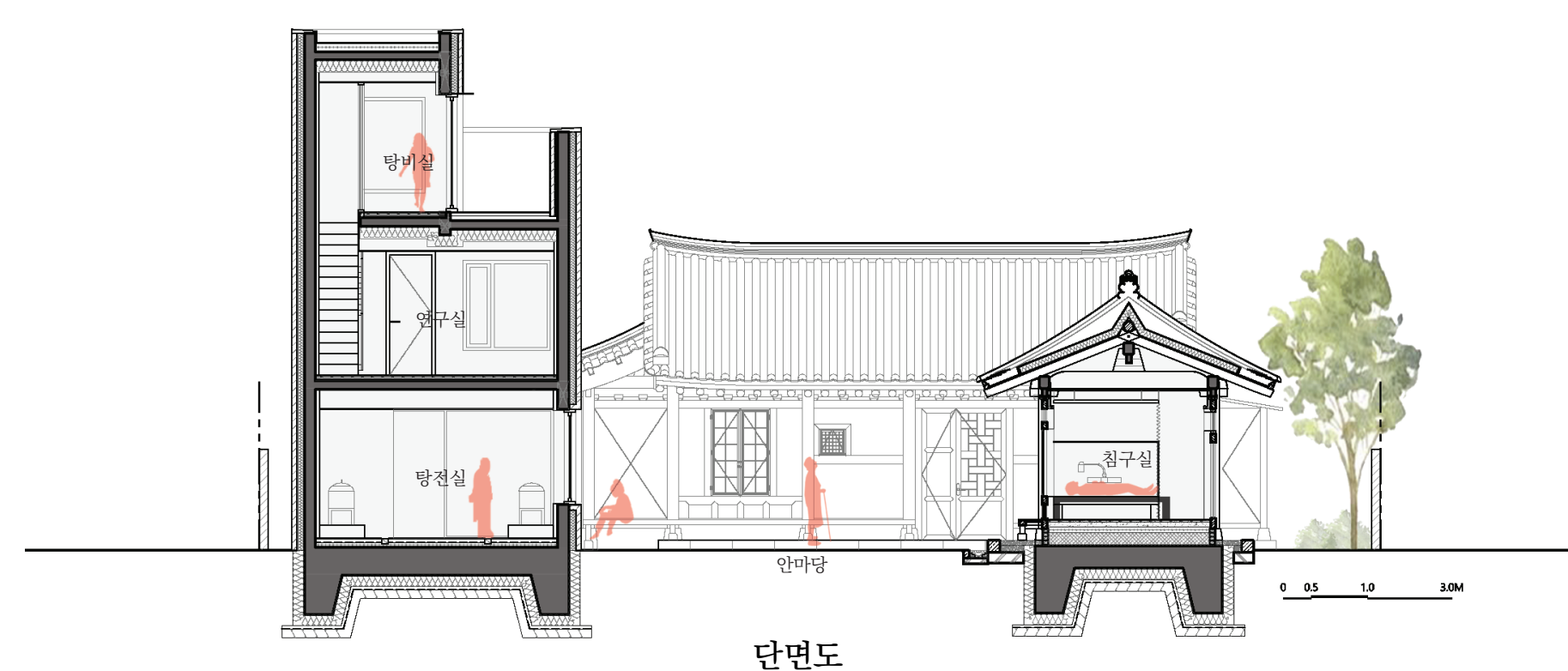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치마선과 직선의 명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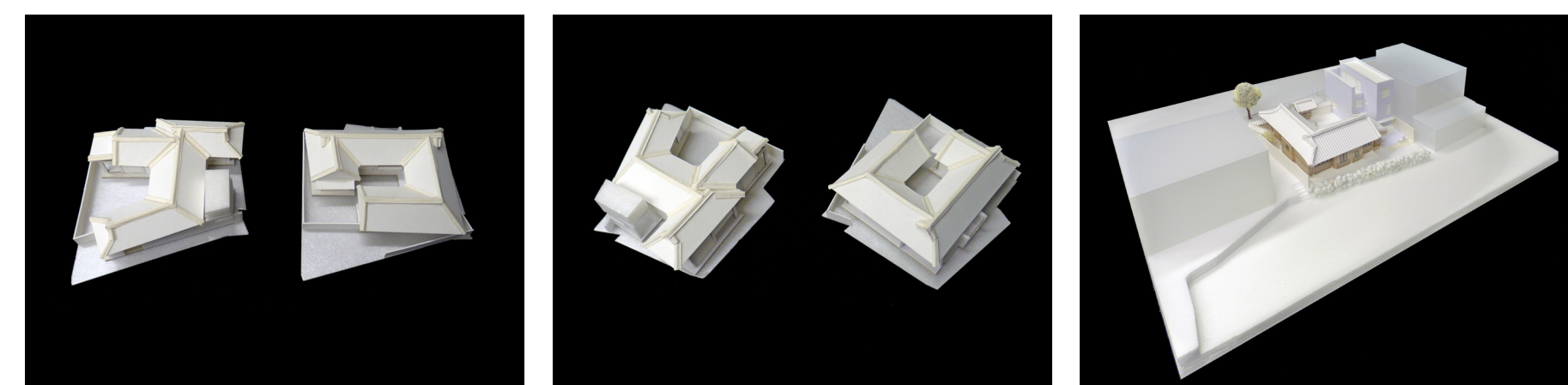
한의원은 한옥(진료동)과 양옥(연구동)이 함께 병존하고 있다. 시작은 한옥의 일부에 탕전공간을 두는 계획이었다. 화재안전을 고려해 별동으로 탕전 및 연구공간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계획이 진행되었다. 직선의 한식담장과 연구동을 하나로 엮어 건물자체가 담장의 연속이 되도록 했다. 도로에서 바라보았을 때 한옥 용마루에서 시작하여 좌측으로 상승하는 스카이라인을 주기 위해서 양옥의 3층은 발을 외부로 내주어 베란다로 구성했다. 양옥의 외피는 붉은 벽돌로 정하였는데, 근대한옥에 다수 쓰이는 붉은 벽돌을 사용하여 양옥과 한옥 두 동의 이질성을 최소화하면서 친숙한 경관을 연출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목재와 붉은 벽돌, 짙은 회색의 기와와 금속테두리 등 상호간에 색상의 연속성을 가지고자 하였다. 안마당에 들어서면 마당과 면하는 벽에 두 동 모두 적극적으로 창을 내어 상호간 시선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마당에 면한 쪽마루에 둘러앉으면 어느 곳에서도 두 건물이 시야에 함께 담겨 자연스럽게 하나의 한의원 공간으로 인지되도록 했다.



신용현 일간지서 2021



단면도



| 매스스터디 과정



| 대문을 열면 보이는 안마당과 누마루



| 진료동의 대기공간. 3연동 미서기문으로 개폐정도를 조절해 단계를 환자를 살핀다.



| 진료동의 침구실. 다양한 창을 두어 차경이 가능하다.



| 진료동의 대기공간에서 바로본 진료실. 진료실 너머는 원장님의 개인공간을 두었다.